

책빙의물 웹소설에 드러나는 저자성과 주체 연구

- <문과라도 안 죄송한 이세계로 감>을 중심으로

박지희*

|| 차례 ||

- I. 머리말
- II. 저자와 캐릭터 그리고 독자의 위상
- III. 웹소설이 지닌 예술적 미감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책빙의물 웹소설의 서사세계를 통해 저자와 독자 간의 의미론적 위상을 살펴보고, 작품 안에서 움직이는 캐릭터의 정체성 문제를 사유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저자에 관한 전통적 개념의 유효성을 진단한 후 저자와 캐릭터, 그리고 해석자가 재중심화되면서 실제적 객체로 현시되는 순간을 분석작을 통해 살펴보았다. 웹소설 <문과라도 안 죄송한 이세계로 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캐릭터와 실제 인간과의 위상 문제를 분석작 전반에 걸쳐 고민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저자와 독자, 캐릭터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담고 있어 논의점을 살펴보는 데 유용할 거라 판단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어떤 예술작품은 단지 흥미로워서, 이런 흥미로움에 힘입어 예술작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작이 지닌 세계관은 독자로 하여

* 경일대학교 초빙교수

금 미적 특질을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연루되지 않는다면 어떤 예술도 존재하지 않으며 독자의 머릿속에서 재증심화된 허구세계는 저자나 독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존재론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주제어 : 웹소설, 책빙의물, 저자성, 주체, 객체, 예술, 문과라도 안 죄송한 이세계로 감, 문송안함

I. 머리말

이 글은 책빙의물 웹소설이 서사세계를 구축 또는 탈구축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저자와 독자 간의 의미론적 위상을 통해 저자 개념을 환기해보면서 동시에 텍스트 공간을 지배하는 등장인물의 정체성 문제를 사유해보고자 한다. 저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전통적 논의를 돌아보고 흥미로움이 예술작품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책빙의물 웹소설이 지닌 세계관에서 보이는 미적 특질을 객체지향존재론(OOO)에서 말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구해보았다.

객체지향존재론이란 상관주의(correlationism)가 가진 좁은 대역폭을 비판하고 인간과 세계가 상관하는 것을 넘어 비상관주의적인 객체들, 예를 들어 비인간(nonhuman)까지 포함하는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는 철학적 입장이다. 한국 웹소설의 서사세계는 작가가 있는 실체세계가 서술자가 있는 가능세계를 넘나들며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그 차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특징이다.¹⁾ 등장인물 또한 인간이 아

1) 줄고, 『한국 웹소설의 서사세계』, 보고사, 2024, p.179.

닌 경우가 많으며 인간이었다가 비인간으로 변하거나 또는 그 역이 성립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서사세계의 캐릭터와 작품의 창작자, 그리고 작품 창작에 깊숙이 개입하는 독자가 혼종적으로 존재하는 웹소설이라는 분야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론적 위상을 동등하게 다루는 객체지향존재론적 사유는 본 논의를 진행하는데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책빙의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웹소설의 하위장르로 대두된 책빙의물이 지닌 형식적 특성과 메타픽션으로서의 장르적 함의를 알기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독자의 성별이나 향유방식에 따라 장르를 한정하여 논의하는 특색이 있었다. 책빙의물의 정의부터 해당 장르에 등장하는 캐릭터 특징, 텍스트가 지닌 메타장르적인 특성 등은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각기 ‘남성향’과 ‘여성향’이라 불리는 현대판타지와 로맨스판타지 장르에 등장하는 주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책빙의물에서는 현실세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을 변화시키거나 주인공보다 더 뛰어난 인물로 변화함으로써 원래 ‘비범한 인물’이었던 존재를 능가하게 되는 서사적 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주인공 위주의 영웅 서사를 기반으로 하는 웹소설의 장르 규칙을 비트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주인공의 ‘먼치킨’적인 능력을 주변인에게 이항시켜서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가 주인공에 대해 적대자가 되지 않고서도 남다른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중심인물로 부상한다. 얼른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고 주인공 자리를 꿰차는 형세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다지 이상하거나 억울해 보이지 않는 것은 빙의자의 지위 때문이다. 빙의자는 통상 책의 저자나 독자, 편집자 등 책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자 책의 탄생에 기여한 인물이다. 가령 〈전지적 독자시점〉(이하 전독시)의 김독자는 ‘멸살법’이라는 웹소설을 끝까지 읽은 유일한 독자이고, 〈소설 속 엑스트라〉의 김하진은 소설 속에서 빙의하게 되는 작품인 ‘이계 귀환 영웅’의 저자이며, 〈문과라도 안 죄송한 이세계로 감〉(이하 문송안함)의 김정진은 책 속의 책인 ‘알비온 왕국의 왕자’의 편집자다.

빙의라는 코드를 이용해 텍스트 실제세계(TAW) 속으로 잠입한 텍스트 참조세계(TRW)의 내포화자는 이제 텍스트 실제세계 속에 녹아든 캐릭터가 되어 웹소설 텍스트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버린다. 새로운 실제성을 만드는 재중심화 작업이 실제세계(AW)를 미메시스한 공간으로서의 텍스트 참조세계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를 재투사하는 텍스트 우주(Textual Universe)인 텍스트 실제세계에 던져진 웹소설 작가(또는 독자, 편집자)는 흡사 스트리머에 가까운 모습으로 서사를 진행하는 형국이 된다.²⁾ 웹소설 안의 소설 속 주인공과 웹소설 전체 텍스트의 주인공이 한 공간에서 만나는 메타픽션적인 요소는 텍스트 실제세계 내에서 인물들이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를 재해석하게 되며 웹소설의 다양한 층위를 만든다. 그 안에서 현대판타지 책빙의물은 서사 의미를 궁구하게 된다. 주변인물이 성장하는 서사세계는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사회계층적 사다리에 대한 저항의 표시³⁾이자 자기정체성에 대한 질문⁴⁾을 하는 서사 세계를

2) 즐고, p.42: 구자준, 「책빙의물과 게임방송물 웹소설의 자기반영성 연구—〈전지적 독자 시점〉과 〈납골당의 어린 왕자〉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66, 상허학회, 2022, p.391.

3) 유인혁, 「한국 웹소설 판타지의 형식적 갱신과 사회적 성찰」, 『대중서사연구』 26(1), 대중서사학회, 2020, p.97.

4) 홍우진·신호림, 「웹소설 〈소설 속 엑스트라〉의 빙의 화소를 통해 본 정체

드러난다. 빙의란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깃드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래 그 안에 있던 존재와 새롭게 들어간 내가 상충되면서 책빙의 물에서는 혼종의 서사가 펼쳐진다.

로맨스판타지와 같은 여성향 책빙의물에서는 영웅 서사에 기반을 둔 현대판타지나 퓨전판타지 같은 남성향 책빙의물의 장르적 특징에 더해 연애를 통한 생존이 중요 포인트로 떠오르며 페미니즘적 독서를 행하게 된다.⁵⁾ 책빙의 인물은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상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오히려 기득권자인 주인공의 서사를 도둑질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성취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⁶⁾ 즉, 악녀 프레임이 가진 여성인물의 부상은 생존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시대의 면모이자 그 반대급부적으로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의 연대와 우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함의를 읽어내는 것은 웹소설을 소비하는 독자의 문제와 연결된다.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해 로맨스 웹소설을 소비하는 독자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사랑에 대한 환상이 충만하며 연애의 최종 목표가 곧 결혼인 다소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집단이다.⁷⁾ 웹소설 독자는 도전이나 개혁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작품 속 캐릭터를 소비할 때도 이러한 경향성을 반영한다는

성의 문제와 가능세계의 양상], 『국제어문』 98, 국제어문학회, 2023, p.42.

5)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책빙의물’의 특성 연구 - 로맨스판타지 장르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6(3), 대중서사학회, 2020, p.92.

6) 권경미,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의 신계급주의와 서사 특징 - 책빙의물과 희귀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84,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p.127.

7) 김경애, 「한국 웹소설 독자의 특성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2(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21, p.551.

것이다. 메타픽션인 책빙의물을 소비하는 것도 독자의 취향과 맞아 떨어지기에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원작을 재해석해 새로운 캐릭터를 삽입하거나 원전 텍스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캐릭터를 밀어내고 주변인이 메인 캐릭터로 부상하는 형태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책빙의물은 원작이라는 안정적 베이스 위에 새로운 서사 세계를 구축 또는 탈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도 있다.

책빙의 서사가 팬픽션의 상상력과도 맞닿아 있다는 주장도 있다. 팬픽션 글쓰기는 팬이 원전 텍스트를 몰입해 읽은 후 텍스트 안의 세계에서 모험과 낭만을 꿈꾸는 데서 시작한다. 원전에 오리지널 캐릭터를 삽입해 원전 텍스트의 전개를 해체하는 ‘메리 수(Mary Sue)’ 팬픽션은 책빙의물 서사와 장르적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다.⁸⁾ 팬픽션 글쓰기는 팬심이 기본 전제이다. 즉 그들은 열혈독자로서 장르를 ‘다시 쓰기’ 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덧글독자’의 탄생을 상기시켜볼 만하다. 독자가 다는 덧글로 인해 작품의 전개 양상이 달라지고 작가의 외연이 달라졌으며 종이책에서 IP 비즈니스로의 이행에 따른 창작 환경의 변화가 독서 지형과 문학을 변형시켰다.⁹⁾ 웹소설 독자의 위상이나 위치가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입김이 덧글로 나타나 실

8) 이 연구는 2000년대 판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므로 웹소설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PC통신에서 인터넷소설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텍스트에 관한 연구라고 볼 수도 있다. 웹소설의 기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해당 연구를 웹소설 연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겠다. 손진원, 「‘메리 수’ 팬픽션과 책빙의물의 관련성 연구: 2000년대 판타지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94, 동악어문학회, 2024, p.13.

9) 류수연, 「웹소설, 덧글, 그리고 독서 - 스토리ске이핑과 변화된 ‘읽기’의 감각」, 『비교한국학』 30(3),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p.72.; 김준현, 「문학 매체로서의 ‘웹’의 대두와 소설가/작가」, 『현대소설연구』 93,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 p.28.

제 창작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지어 독자가 지닌 ‘주체성’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되는 것이다.¹⁰⁾

책빙의물 웹소설은 이러한 독자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을 극대화한 창작물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책빙의 등장인물은 독자나 작가, 편집자처럼 그 책에 대해 원작자 다음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로서 책에 대한 사전 지식을 지닌 채 텍스트 실제세계에 빙의한다. 그리고 그 인물에게 작품 편집이나 수정 권한이 생기면서 2차 창작이 이루어지게 된다. 원작은 더 이상 원작일 수 없다. 동일성의 원칙은 깨지고 빙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해석자였던 등장인물이 어느새 창작자로 변신하는 혼돈의 서사가 이루어진다.

이 글은 이러한 하이브리드 상황에 처한 메타 웹소설 속 등장인물이 지닌 저자적 성격을 살펴보고 웹소설 텍스트를 관통하는 등장인물의 주체의식을 따라 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캐릭터와 실제 인간과의 위상 문제를 작품 전반에 걸쳐 고민하는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텍스트 자체가 해당 문제를 실제세계의 ‘덧글 독자’들과 어떤 식으로 호흡하였는지, 또 실제 작가가 저자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한 적이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표본의 조건이 되었다. 작가와 독자, 캐릭터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책빙의물의 존재태를 따져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수일 작가의 웹소설 <문송안함>¹¹⁾이 상기 조건

10) 김준현, 「웹소설의 덧글과 독자 주체성의 문제」, 『국제어문학회, 2021, p.370.

11) 문피아에서 2019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연재한 작품으로 총 490화로 완결되었다. 작가의 데뷔작이며 오디오북과 텀블벅 굿즈가 출시되어 있고

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분석작으로 결정하였다.

II. 저자와 캐릭터 그리고 독자의 위상

정수일 작가의 웹소설 〈문송안함〉은 ‘문송’(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이라는 다소 시니컬한 블랙 유머를 키워드로 내세운 작품이다. 알다시피, ‘문송’이란 인문대를 나오면 취업이 어렵고, 이공계에 비해 연봉도 낮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문과 출신 스스로 깨달아 이를 자아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미안한 마음이라는 다소 부적절한 감정 상태로 표출하는 자기비하성 발언이다. 즉 경험자의 상황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가 다시 경험자에게 되먹임되어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이 되고, 그 결과 경험자가 부정적 감정이나 평가로서 느끼는 부끄러움과 창피함, 수치스러움, 수줍음의 감정 발생 과정과 유사한 패턴¹²⁾을 지닌 언어이다. 그런데 이 웹소설은 문과 출신이라도 전혀 ‘죄송’하지 않을 이세계가 공간적 배경이다.

“그래서! 필수과목에! 고전이 있는 것이다. 무릇 뛰어난 마법사라면 언어에 밝아야 한다. 아름다운 조성의 언어에 더 큰 힘이 깃들기 때문이다. 진언을

웹툰 제작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이낸스투데이, 「스토린 랩-HT 스튜디오, MOU 체결」,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655>(검색일:2025.8.16.)

- 12) 김아림·김바로, 「부끄러움/창피함/축스러움/수치스러움/수줍음 간의 관계 고찰: 공기 명사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문맥 분석」, 『언어』 43(3), 한국언어학회, 2018, p.412.

잘 지으면 같은 레벨의 마법사가 같은 마법식을 써도 위력이 두 배까지 차이가 나! 발사력이 달라지는 거다.”

(중략)

‘이거 너무 작가 선생 사감이 들어간 설정 아니야? 후, 문과라고 다 같은 문과가 아니네. 사학과 말고 국문학과를 나왔어야 여기선 더 도움이 됐겠어.’¹³⁾

마술을 부리려면 마법식이 있어야 하고 이를 부르는 게 진언이다. 마법식은 “도형과 문자의 조합”으로 단순한 게 일반적인데 <문송안함>에서는 진언이 문학적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작품에는 여러 고전에서 인용한 문구들이 진언으로 활용된다.

[거센 바람이 5월의 여린 꽃봉오리를 뒤흔드니!](“Sonnet 18, William Shakespear)¹⁴⁾

[제에서 재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라!](“Book of Common Prayer)¹⁵⁾

위의 인용한 문구들 말고도 소설에는 계속 고전 인용구가 나온다. 심지어 웹소설에 각주를 달아 참고문헌 표시를 했다. 이러한 형식의 파격성은 웹소설의 전개가 장르 규칙을 위배하거나 파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 단서를 던진다. 이는 클리셰 비틀기로 작동해 <문송안함>이 웹소설이 통상 지니고 있다 여겨지는 도식적 구조를 벗어날 것을 예고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후 ‘문과’적인 상상력을 발동해 문학의 주요 구성인자인 저자와 독자, 그리고 캐릭터의 위상

13) 정수일, 『문과라도 안 죄송한 이세계로 감』, 문피아, 2019~2022, 12화.

14) 정수일, 위의 책, 14화.

15) 정수일, 위의 책, 16화.

관계를 조망하기 때문이다.

〈문송안함〉은 ‘기억된 세계’를 바탕으로 한다. 주인공 김정진이 “지난 세계 과거를 불완전한 참고문헌 목록처럼 매달고 있는”¹⁶⁾ 판타지 소설 「알비온 왕국의 왕자」만의 ‘편집자’로 빙의하면서 벌어지는 책빙의물 웹소설이다. 김정진은 원래 세상에서도 출판사 편집자였는데 「알비온 왕국의 왕자」라는 소설이 그의 손에 왔을 때는 이미 여덟 번째 수정을 끝마친 상태였다. 출판사 기조와 맞지 않은 투고작에는 답장을 보내지 않는 게 관례였지만 8교나 치른 저자의 노력이 가상해 김정진은 타 출판사를 추천해주며 재투고해볼 것을 권유한다. 예의상 보낸 답장에 저자가 재답장을 했는데 그걸 읽자마자 “전언이 수신”¹⁷⁾되면서 김정진은 소설 속 주변인물인 클레시오 아세르로 빙의한다.

〈문송안함〉은 무료 회차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저자의 의지와 캐릭터의 위상 문제를 거론한다.

저자의 의지가 작용하는 이상으로, 인물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실천하며 생을 살았다.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거나, 저항하면서. 이 이야기는 작품에 속한 인물들에 의해 비틀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틀림을 인식하고 정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자 개입자가 바로 자신일 것이다. 저자의 의도를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저자에 준하는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힘— ‘편집자 권한’이란 것의 의의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¹⁸⁾

「알비온 왕국의 왕자」속 등장인물들은 작품 속에서 살아있는, 생

16) 정수일, 위의 책, 241화.

17) 정수일, 위의 책, 1화.

18) 정수일, 위의 책, 28화.

명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기도, 비틀리기도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원래 세상에서 편집자였던 김정진도 빙의한 책세상에서마저 편집자 역할을 하며 ‘편집자 권한’이라는 이능력을 활용해 본분에 충실히 임한다. 여기서 편집자란 저자의 대리인으로서 작품에서 신과 같은 권능을 가진 저자를 대신해 아홉 번째 원고를 쓰고, 고칠 수 있는 인물이다. 클레이오는 명목상으로는 절대자인 저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자와 같은 위치에서 작품에 칼을 대는 자이다. 이러한 절대자로서의 저자와 절대자에게서 권한이 이양된 주체로서의 저자 관계는 우리에게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내걸어 사유의 기저에 놓인 존재를 ‘주체’라 사유했다. 글을 쓰는 행위로 사유를 옮겨가면 글을 쓰는 자는 바로 ‘나’, 주체로서의 내가 쓰는 것이다. 저자는 글의 주인이고 글은 저자의 산물이라는 생각, ‘쓰는 자’로서의 저자는 근대적 주체로서 동일한 정신으로 남는 인격적·개별적 주체이다.¹⁹⁾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인격인 근대적 자아의 권리는 절대적 일자인 신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렇다면 「알비온 왕국의 왕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저자의 의지”만큼이나 등장인물들도 “의지를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적어도 근대적 주체로서의 저자 개념만으로는 신의 대리인인 편집자 클레이오와 작중 여타 캐릭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주체로서의 저자인 클레이오조차 작품 속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19) 김창래, 「저자란 무엇인가?」, 『철학』 112, 한국철학회, 2012, p.83.

양상실재론에서는 실제세계와 가능세계가 모두 동일한 물질, 즉 물질적으로 동일한 사물과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되 각기 다른 양상을 지닌 실체들이 사는 세계라는 전제를 가진다. 실체를 참조하는 허구적 서사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허구적 서사세계 속 인물 또한 구체적이고 존재론적인 완전한 개체가 된다는 것이다.²⁰⁾ 이러한 서사 이론은 허구적 텍스트인 소설의 서사세계를 규명하는데 효과적이다.

쓰인 이야기와 쓰이지 않은 세상 사이엔 뒤집힐 수 없는 위계가 있는가? 태어난 인간과 쓰인 인물 사이의 상하관계는 절대적인 것일까? 인물은 인간에 미달하는 존재일까? 이런 의문이 ‘김정진’과 ‘클레옌 아세르’ 사이에서 제기될 때 긍정의 답변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²¹⁾

텍스트 실제세계를 살아가는 캐릭터들과 실제세계의 저자 및 텍스트 참조세계의 내포화자 등은 양상 실재론에서 모두 존재론적 위상이 동일하다. <문송안함>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교정에 교정을 거듭하면서 작중인물들에게도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알비온 왕국의 왕자」의 진짜 주인공인 아서 리오그난은 교정이 반복될 때마다 자신이 환시를 보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등장인물인 멜키오르 왕세자는 ‘팔림프세스트’에 쓰인 기록들이 누수되어 그의 기억 속에 남겨진다는 걸 인지한다. 팔림프세스트란 원래 양피지에 쓰인 문자를 갈아내거나 씻어 초고를 지우고 그 위에 덧입힌 작업본을 말한다. 즉, 아홉 번째

20) 즐고, 앞의 책, pp.111~112.

21) 정수일, 앞의 책, 29화.

교정본인 책빙의 세상에서 등장인물은 초고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못한 채 교정본 세상을 살아가며 심지어 자신들이 수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원본과 복제본의 근원적인 관계를 환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자신이 원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정체성 혼란은 과거의 어딘가에 원본이 있고 이를 변형하거나 수정한 존재라는 불안으로 인해 야기된다. 시간성 속에서 인간의 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가변적이고 흐릿한 그림자로서 불안은 두려움 그 자체로서 대상이 없다. “그냥 거기 있”(il y a) 되 파악할 수 없는 존재라는 자각, 삶이 그 내용을 상실할 때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한다.²²⁾ 어쩌면 처음부터 쓸모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내가 무쓸모의 존재라는 자각만큼 아픈 통각이 있을까.

멜키오르는 등장 시간에 맞추는 능숙한 배우처럼 행동했다. 그에겐 역시 그 자신만의 각본이 존재할 테니까.

“지, 금이야, 클레이오. 나와야 약속을 이행하, 게. 나의 이름을 지워서 끝, 까지 채워져 버, 린 팔립프세스트에 다시 자리,를 얻도록 해.”

멜키오르의 말에 호응하듯, 원고에 쓰인 그의 이름들이 마르지 않은 잉크의 광택을 발했다.

파르르르륵.

바람을 맞아 앞장으로 넘어간 페이지들, 이미 확정되어 개정될 수 없었던 부분에서조차.

클레이오에겐 다른 방도가 없어서, 방금 막 새로이 기재된 멜키오르의 이름이 포함된 문장, 남은 낱장의 몇 줄을 채우던 구절에 사색 부호를 그려보았다. 손이 떨려서 무참히 일그러진 선이 원고 위를 내달렸다.

22) Levinas, E., *Le Temps et L'autre*. Fata Morgana, 1979.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p.123.)

지이익.

클레이오는, 남은 원고에서 그를 지울 수가 있었다. 그러자 시간의 일부가 되돌려지고, 멜키오르는 다시금 숲의 가운데로부터 가장자리로 걸어나온다. 종전과 꼭 같은 움직임으로.²³⁾

멜키오르는 「알비온 왕국의 왕자」에서 가장 필요 없는 존재이다. 이 소설은 아서 리오그난이 왕이 되면 끝나는 이야기다. 그것이 저자가 정한 플롯이다. 그런데 멜키오르라는 작중인물이 존재함으로써 아서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거나 오른다 해도 소설은 개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멜키오르는 여덟 번의 교정 동안 계속 알비온 왕국의 왕세자였다. 이미 왕세자가 있는데 그 왕세자를 폐위시키고 세 번째 아들인 주인공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지난한 모험과 반역이 필요하다. 그런 연유로 아홉 번째 소설은 글씨를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너털너털한 편집본이 되었다. 여기서 멜키오르는 차라리 없어지는 것을 선택한다.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존재를 의미 있게 탈바꿈시키는 것은 무(無, nothingness)가 아니라 공(空, emptiness)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실체가 없는 충만함이다. 멜키오르가 사라짐으로써 아홉 번째 교정본에는 글씨를 쓸 공간이 마련되어 7장 다음에 8장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멜키오르의 소멸은 그의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단순히 언어의 피조물이 아니라 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주도자로서의 캐릭터는 절대자인 저자나 그의 권한대행인 편집자의 권한을 무색케 한다. 실제세계의 인간만이 주체라는 근대적 사고로는 원고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존재론적 위상을 가진 또 다른 인물이자 소설의 주인공인 아서 리

23) 정수일, 앞의 책, 477화.

오그난이 획득하고자 한 것 때문이다.

“레이, 또 자책하고 있지. 그렇지만 이 결정된 세상에선 죄조차도 온전히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닌데, 그게 왜 네 탓이 되겠어. 너 역시 생각했잖아. 주인 공이란 신의 적자인 동시에 대적자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그 두려운 인용에 압도되어, 클레이오는 필사적으로 완드를 쥔다. 세상의 에테르가 모두 그의 앞에 모여서 복종하는 이때에, 조금만 완드를 움직여 마법식들을 연결하면 대폭발을 일으킬 찰나에.

아서의 소망은 명확해진다. 그가 획득하려 들던 이름은 저자(author)이다. 그건 신이 결코 원치 않던 방향의 자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잔존하는 신의 힘은 마지막 강제력을 발휘하며 인간의 아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명명한다.

(중략)

아서 리오그난.

구원의 지연자.

(중략)

폐허가 된 여신의 유적 위로 구원을 지연시키는 적대자의 힘이 성전을 지은 셈이었다.²⁴⁾

아서(Arthur)가 원한 것은 오서(Author)다. 즉 신(저자)에게 양도받은 권리로서 발동되었던 편집자의 권한을 빼앗으려는 캐릭터의 반역이 일어났다. ‘작내 서술’을 무화시키려는 의지는 저자와 편집자의 권한을 말소시킴으로써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결국에 아서는 다른 사람의 펜으로는 새로이 쓸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났다.

(중략)

이제 세상을 쓰는 것은 누구인가?²⁵⁾

24) 정수일, 위의 책, 476화.

25) 정수일, 위의 책, " .

위 대목은 롤랑 바르트가 분석한 발자크의 중편소설 「사라신(Sarrasine)」을 연상시킨다. 조각가 사라신과 거세된 남성 가수 잠비넬라(Zambinella) 간의 러브스토리를 다룬 이 소설은 끝날 때까지 ‘거세’라는 키워드를 상기시킨다. 그리하여 발자크의 소설은 명백하고 단순하게 사라신(Sarrasine)의 S와 잠비넬라(Zambinella)의 Z가 합쳐져 Sarra/Zine(S/Z)으로 읽혀질 수 있다. 이것은 텍스트 내부의 상징적 코드가 등장인물을 업고 밖으로 튀어나와 독자의 머릿속에서 재구성되는²⁶⁾ 현상의 현현이다. 원래의 저자가 뜻했던 바에 간하지 않도록, 새롭게 말할 수 있도록 저자는 죽어야 하고 저자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독자가 탄생해야 한다.²⁷⁾ 그것이 서사 정보를 해독하는 고차원적인 독서이자 글쓰기의 ‘제로 포인트(zero point)’라는 것이다.

〈문송안함〉의 액자소설 「알비온 왕국의 왕자」의 주인공 아서는 저자는 물론이고 편집자마저 살해한 후 스스로 ‘오서’의 지위에 오르려 한다. 저자와 편집자의 죽음은 아홉 번이나 이어진 교정을 무용하게 만들고, 저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 김정진이 작중인물인 클레이오로 분한 것마저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다. 저자와 캐릭터는 이제 결코 뜻을 함께 하지 않는다. 아서는 교정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다. 즉, 그에게 팔립프세스트 원고는 텍스트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독서 행위와 중첩된다. 아서는 작중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권위를 가진 저자와 편집자의 행위를 기억하는 독자이기도 하다. 독자인

26) Barthes, R., S/Z. Éditions de Seuil, 1970.(김웅권 옮김, 『S/Z』, 연암서가, 2015. p.392.)

27) Barthes, R., Plaisir Du Texte. Éditions de Seuil, 1973.(김희영 옮김, 「저자의 죽음」,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p.28)

자 캐릭터인 그가 노리는 것은 저자의 자리이다. 그가 가지고자 하는 ‘오서’라는 이름은 삼위일체를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일 수 있다. 하지만 아서의 행위는 “구원의 지연”이 되고 만다. 아서의 폭주하는 저자성에 대한 욕심을 잠재우기 위해 팔립프세스트는 여백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홉 번째 원고는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아홉 번째 판본의 세상은 영원히 이계의 문이 열린 아포칼립스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는 교정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원고는 10교의 세상조차 맞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소설은 아서가 왕위에 올라 행복한 알비온 왕국이 되어야만 다음 교정 섹션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멜키오르가 무(無)로 돌아갔다. 또한 편집자이자 절대자로 하여금 대사장의 권위를 부여받은 클레이오는 ‘구원의 지연자’를 징벌하기 위해 무기를 든다. 텍스트 실제세계를 이끌어가는 등장인물 아서와 텍스트 참조세계의 편집자가 서로의 가슴을 겨룬다. 그리하여 9교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누구의 힘을 빌지 않고 스스로의 날개로 날아오른 천사와, 부서지는 대지를 딛고 뛰어올라 그를 저지하려는 인간은 구름 속에서 처절히 맞부딪친다.

(중략)

날카로운 완드의 끝이 천사를 맞아선 자의 가슴에 처박히고, 사자의 검이 천사의 몸을 꿰뚫고야 만다.²⁸⁾

이야기는 10교에서 수정되어 아서 리오그난을 외동으로 만드는 서사가 탄생한다. 이제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세력은 사라지고 모

28) 정수일, 앞의 책, 478화.

든 기억을 간직한 아서는 별 무리 없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아서가 왕이 된 천 년의 이야기가 초고로서 진행되지만 이것은 정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둘의 싸움으로 저자는 사라졌지만 아직 기억을 간직한 편집자 클레이오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한 권의 책이지만, 원고는 결코 책의 등가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의 일이 끝나면 편집자의 일이 시작된다.²⁹⁾

편집자가 선택한 것은 이 세상을 흐르고 있는 시간을 멈추는 것이다. 비가역적인 시간이 이세계(異世界)에서는 ‘최후 편집자’의 권능으로 멈춰질 수 있다. 마스터클락을 정지시킨 클레이오가 향한 곳은 8교의 마지막 장이다. 거기서 그는 여덟 번째 이야기를 끝내고 아홉 번째 원고를 다시 써 내려갈 것이다. 그것은 또다시 ‘문과라도 안 죄송한’ 마법으로서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 될 것이다.

Ⅲ. 웹소설이 지닌 예술적 미감

미술평론가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는 예술작품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리터럴리즘’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사전적 의미로는 문자대로 해석함, 직사(直寫)주의 등으로 풀이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대로 베끼는 것 등을 뜻한다. 프리드는 미니멀리즘 회화가 가지는 작품성을 논하기 위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그가 보기에 미

29) 정수일, 위의 책, 489화.

니멀리즘은 ‘몰입’을 일으킬 수 없는 저급한 베껴 그리기에 다름 아니었다. 미니멀리즘 미술가들은 예술을 ‘흥미로운’ 것이기만 하면 된다는 관념으로 교체하기를 바란다고 불평했다.³⁰⁾ 이러한 논의는 웹소설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어왔다. 웹소설을 창작할 때는 작품의 질보다는 독자를 잡아둘 수 있는 작가의 능력이 중요하며 클릭세를 강조하고 절단신공이나 사이다 터트리기 등을 통해 수용자인 독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업콘텐츠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³¹⁾ 또한 웹소설은 단기적인 보상을 얻고자 하는 자기 효능감을 포함하는 장르로서 숏폼-피드백 시대의 문화콘텐츠로서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웹소설은 태그형 장르이기에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를 인유(allusion)적 연쇄로 이루어진 일종의 ‘거대한 텍스트’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³²⁾ 이러한 평가들은 웹소설이 작품의 질보다는 ‘흥미로운’ 것이기만 하면 되는 장르인데다 이미 태그로 사전 독서가 가능한 장르이므로 굳이 작품 하나하나를 살펴볼 이유가 없다는 설명으로도 들린다. 그렇기에 기존 문학에서 행하는 작가·작품론으로는 하나의 ‘통’으로서 파악되는— 거대한 텍스트로서의 웹소설을 조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플랫폼에 서비스되는 웹소설의 방대한 분량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러한 주장은 일견 맞는 말이다. 플랫폼에서 서비스할 작품을 선정할 때 작품성보다는 흥미와 대중성에 큰 비중을 두

30) Harman, G., *Art and Objects*. Polity Press, 2020.(김효진 옮김, 『예술과 객체』, 갈무리, 2022, p.163.)

31) 김명성, 「웹소설 창작론 연구」, 『우리문학연구』77, 우리문학회, 2023, p.115, p.124.

32) 박인성, 「숏폼-피드백 시대의 웹소설: 문장형 제목과 태그형 장르를 통한 사전 독서」, 『동서인문학』 66,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4, p.14.

는 경향이 있고³³⁾ 플랫폼마다 수만 개 이상의 작품이 업로드되어 있는 현실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렇다면 대중성과 흥미 위주의 작품은 예술일 수 없느냐는 질문을 역으로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웹소설에 ‘리터럴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이들 용어는 대립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비록 상대적인 질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남을지라도 어떤 예술작품은 우리에게 흥미로워서, 이런 흥미로움에 힘입어 예술작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³⁴⁾ 웹소설이 흥미로운 지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송안함>에서의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실제세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평행세계에 있다. <문송안함>이 펼쳐지는 이세계 자체가, 작품이 가진 세계관 설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가? 내막을 몰랐으면 깜빡 속았겠어.’

그만큼 벨키오르의 목소리는 대단했다. 만약 라디오 방송의 시대였다면, 굳이 부족한 정통성을 쥐어짜 왕위를 이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았다.

(중략)

‘간과의 구조서’란 걸 갖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비밀이든 손쉽게 캐낼 수

33) 네이버웹툰과 문피아가 주관하는 지상최대공모전에서는 완성도, 성실성, 창의성, 대중성, 모바일 친화도의 5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당선작을 선정한다고 한다. 공모전이 시작되면 독자의 댓글이 평가의 주요한 지표로 떠오른다. 선호도가 높을수록 당선작에 가까워지므로 독자 평가는 심사위원 평가만큼이나 중요하다. 최근에는 웹소설이 웹툰화되는 경향이 커지면서 IP 확장이 원활한 작품이 높은 점수를 얻기도 한다. 그러므로 웹소설이 상업 콘텐츠이자 대중친화적인 콘텐츠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문피아, 2025 지상최대 웹소설 공모전 연다」, <https://www.fnnews.com/news/202504091013273987>(검색일: 2025.8.19.)

34) Harman, G., op.cit., p.163.

있을 것이다. 「이격」덕에 멜키오르의 고유 스킬을 방어할 수 있던 걸 아는데도, 저절로 경계태세가 된다.

(중략)

[고유 스킬: '□□□의 매혹']

[사용자에게 강력한 매력을 부여합니다. 사랑과 찬탄을 얻도록 합니다. — 사용자의 음성에 강한 설득력을 입힙니다. 사용자: 멜키오르 리오그난]³⁵⁾

상기의 인용문이 그리는 멜키오르의 모습은 라디오의 시대에 인류를 ‘몰입’하게 만든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한다. 히틀러는 희대의 선동가로서 대중심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을 지녔다. 연설 도중 어느 순간에 목소리를 높일 것인지, 라디오 연설을 할 때 어떤 음악을 배경음으로 사용할 것인지 등을 모두 치밀하게 설계했던 인물이다. 멜키오르는 대상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간파의 구조시’를 이용해 알비온 왕국의 사람들을 포섭한다.

<세계혁명의 전망 — 공화주의의 성공과 좌절: 카롤링거 공화국 혁명을 돌아보다>³⁶⁾

[고유 스킬: ‘프로파간다’ — 사용자의 말과 글에 선전·선동의 힘을 부여합니다. — 사용자는 다수 대중의 분노와 용기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 프란시스 가브리엘 하이드-와이트, 동시 적용 가능 인원: ∞]³⁷⁾

프란시스 가브리엘 하이드-와이트(이하 프란)는 8교까지 알비온 왕국의 광산국 관료로 최고의 마도과학자로 명성을 떨치던 인물이다. 그런데 9교에서는 반골 기질을 지닌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었다.

35) 정수일, 앞의 책, 34화.

36) 정수일, 위의 책, 51화.

37) 정수일, 위의 책, 52화.

교정이 거듭되면서 캐릭터에 변형이 가해진 것이다. 편집자인 클레이오는 프란을 과학자로 되돌리려 하지만 편집자가 위력을 부린다 해서 등장인물이 목적에 맞게 변형되기는 어렵다. 부모가 아이를 자기 입맛에 맞게 교육한다 해서 꼭 그대로 아이가 따르는 게 아니듯 캐릭터도 이와 마찬가지로. 캐릭터는 캐릭터 나름의 위상과 욕망이 있다. 존재에는 위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존재 자체가 여타의 객체와 다르지 않은 하나의 평평한 객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³⁸⁾

‘편집자 권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힘.³⁹⁾

아홉 번째 원고에서 프란은 선전선동과 여론조작에 능숙한 혁명가가 되고자 한다. 프란의 행동은 술한 혁명의 역사에서 봐왔던 행동가들을 떠올리게 한다. 원고를 여러 번 썼다 지우는 바람에 등장인물들은 불완전한 회귀자처럼 드문드문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프란 역시 기억하고 있던 마도식을 알비온 왕국을 위해 쓰지만, 그가 아홉 번째 원고에서 이루고자 하는 혁명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문송안함〉의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알비온 왕국의 왕자」저자의 이름이 무사이라는 것에서 추측할

38) 이언 보고스트는 레비 브라이언트와 더불어 자신의 존재론을 ‘평평한 존재론’이라 부른다. Bogost, I., *Alien Phenomenology or What it's like to Be a Thing*. 2012,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김효진 옮김, 『에일리언 현상학 혹은 사물의 경험은 어떠한 것인가』, 갈무리, 2022, pp.56~57.)

39) 정수일, 앞의 책, 44화.

수 있듯 그리스 신화에 바탕을 둔 뮤즈와 아홉 명의 여신이 관장하는 세계이다. 김정진이 책에 빙의하게 되는 것도 여신이 그에게 소설을 끝마치도록 임무를 주었기 때문이다. 둘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혼란기를 닮은 시대가 그려진다. 즉, 왕권이 무력해지고 공화당 세력이 고개를 들던 18세기 후반의 격변기가 시대상에 녹아있다. 셋째,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19세기라 못 박고 있지만, 실제 서양의 근대를 추동한 과학기술 대신 마도과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판타지 세계이다.⁴⁰⁾ <문송안함>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세계관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새롭게 창조된 가능세계이다.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흥미로운 혼성 형식에 있다.⁴¹⁾ 위에서 말한 세계관은 실재적 객체(RO)이지 감각적으로 현전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렇다면 실재적 객체인 <문송안함>의 세계를 어떻게 감각에 현시할 수 있을까.

40) 서양의 근대는 16~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세 가지 핵심적인 과학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클로드 슈발레(Chevalley)에 따르면, 1) 케플러에 의한 시선(vision)의 기하학화 2) 갈릴레이에 의한 운동의 기하학화 3) 보일과 뉴턴이 한 실험 조건의 성문화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소설에서 클레이오가 자동차를 만들어 타고 다니는 등 근대과학기술을 이용·발달시키는 장면이 있으나 소설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마도과학에 19세기 수준의 과학이 접목되어 있는 바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다들 마차나 말을 이용하는 등 평균적 요소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마법이 부리는 이능력으로 인해 현 시대를 능가하는 테크놀로지가 구현되기도 한다. 슈발레의 의견에 대해서는 Hui, Y.,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in China: An Essay in Cosmotronics*. Urbanomic Media, 2016.(조형준·이철규 옮김, 『중국에서의 기술에 관한 물음: 알고리즘 시대 인문학의 새로운 시작: 코스모테크닉스 시론』, 새물결, 2019, p.279~280.)

41) Harman, G., op.cit., p.74.

단서는 충분히 주어져 있었다.

수백 개의 다리와 핏줄처럼 뻗은 운하, 새벽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의 도시. 대공의 거처였던 노란빛 궁전과 색색이 화려한 둥근 돔의 사원을 품은 옛 수도.

북의 베네치아.

그러나 한때는, 무사이 여신들의 시인으로 하여금 송덕케 할 만한 20세기 인물과 같은 이름을 가졌던 장소.

여기는 레닌그라드.

‘아니, 정확하게는 봉쇄된 레닌그라드지.’

이 공간이 재현하고 있는 시기는 2차 대전의 한복판.

독일군의 바리케이드 대신 기억된 세계의 경계가 도시와 허무 사이를 구분해내고 있었다.

오로지 환상 속에서.⁴²⁾

‘핏줄처럼 뻗은 운하’는 운하의 성질을 나타낸다기보다는 핏줄의 성질을 나타내는 비유법이다. 핏줄-성질을 가진 운하가 어떠한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므로 그 운하가 더는 우리 마음에 직접 현시되는 감각적 객체(SO)로서의 운하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실재적 객체(RO)인 운하, 즉 물려서 있는 객체이자 블랙홀의 일종이 된다. 그 주위를 운하-성질들이 불가사의하게 공존한다. 아름다움은 이 쌍이 불러일으킨 긴장으로 인해 발견된다. ‘핏줄처럼 뻗은 운하’가 가지는 감각적 성질(SQ)을 실재적 객체(RO)에 연결 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소설이 묘사하고 있는 레닌그라드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대량학살을 저질렀던 피의 도시 레닌그라드가 몬스터와 마법의 세계로 빚어진 소설의 가능세계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감각적 성질은 ‘리터럴리즘’적인 서술로는 환원될 수 없

42) 정수일, 앞의 책, 241화.

는 세계를 만나게 된다. <문송안함>이 묘사하는 레닌그라드가 모든 직사적인 접근에서 물려서 있는 한 그것이 비록 역사적 사실이었던 어떤 한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소설 속 가능세계에서 펼쳐진 레닌그라드는 더 이상 접근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이 가능세계 속 레닌그라드를 직접 만나는 객체는 누구인가? 객체(O)와 성질(Q)은 항상 짝을 이루어 나타난다고 하면, 물려서 있는 레닌그라드를 만나는 것은 이 레닌그라드에 직접 연루된 객체일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감상자인 독자라고 생각한다. 텍스트 실제세계가 재중심화(recentering)되면서 독자의 머릿속에서 퍼포먼스 될 때 우리는 감각적 성질을 인지하는 실재적 객체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실재적 객체로 인해 소설은 미적인 것이 된다. 내가 미적인 것으로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상자가 연루되지 않는다면 어떤 예술도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예술은 ‘연극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감상자가 예술작품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⁴³⁾ 비록 프리드가 연극적인 것을 예술의 죽음이라고 여겼을지라도 감상자의 주관적 기여를 소거하는 방법으로는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인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넷글 독자’의 감상과 자율성은 작품의 폐쇄성에 저항하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1)가벼움이 미덕이 되어버린 웹소설 체계에서 한 화 한 화마다 그런 마음을 울리는 표현과 보석 같은 문장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텐저린/2022.7.2.)

2) 완결이 난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글을 남깁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공부를 하다 지쳐 잠드는 나날들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소설은 이루

43) Harman, G., op.cit., p.174.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 소설 속 인물들은 다양하고도 일관적이며, 한결같으면서도 양면성을 띄었습니다. 신화와 서사, 역사가 한데 얽혀 풀어져 나가는 이야기들은 체계 더없이 매력적이었지요. 과학과 진보가 이끌어내는 미래가 고통스러운 밤도 있었고, 차라리 그렇게 되었으면 싶은 아침도 있었습니다. 몇백의 날이 지나 소설 속 인물들은 제 꿈에도 나오더군요.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들에 의미와 의무를 찾는 주인공 클레이오와, 행복한 찰나의 순간을 즐기려 하는 주인공 클레이오와, 행복한 찰나의 순간을 즐기려 하는 또 다른 주인공 아서의 이야기가 더없이 아름다워 제 기억 속에 강렬히 자리잡았기 때문일 겁니다. 두 주인공이 소설의 끝을 향해 달려갈 때, 저는 학업에 치져 삶의 의미를 두서없이 탐구했다가 무시하길 반복했습니다. ……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건 아마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나아갈 방도를 생각하지 않는 제 태도의 모순을 어느 정도 알아차렸기 때문일 겁니다. 한없이 올바르게만 한 존재,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인류 공동의 의지하면서도 이상론에 가까운 인물은 활자로 볼 때도 이상적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글을 읽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 스탈린과 히틀러는 없음에도 그들의 혐오는 파편화되어 사회 곳곳에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프란’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꾸준히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못된 결말이 있다 하더라도 옳은 것을 옳게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설에서 클레이오와 아서의 우정과 신의를 보았으며 프란이 가진 인류 전체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으려 합니다. 아서와 같이 한없이 옳은 사람은 없고, 여신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 세상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프란의 의지를 꼭 닮은 사람들과, 아서의 선함을 따라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레티샤나 첼과 같이 정의와 신념, 또 다른 가치관들의 충돌에서도 옳은 것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두서없는 긴 글이지만, 감상보다는 감사의 목적으로 쓴 글입니다…… (n9672_k1189 www/2024.4.15.)⁴⁴⁾

44) 정수일, 앞의 책, 490화 댓글란.(검색일:2025.8.19.) 마지막화에 남긴 댓글들이므로 소설을 완독한 독자가 남겼을 확률이 높은 댓글창이다.

가마 속에서 타오르는 불은 아마 무척 뜨거울 것이다. 온도로만 본다면 뜨겁겠지만 그 불이 얼마나 적은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참작해보면 불대정(覽火匠)은 그의 작업에 몽상을 추가해야만 불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매클루언적 의미에서 ‘쿨 미디어’다.⁴⁵⁾ 웹소설 중에서도 현대판타지나 로맨스판타지처럼 신화나 전설을 활용하는 경우 독자는 판타지 월드를 가능세계로서 재구성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활발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특히 책빙의물인 <문송안함>은 소설 속 액자소설에 빙의한 등장인물이 끊임없이 소설을 편집하며 서사세계에 관여한다. 때문에 하나의 인쇄물로서 변화의 여지가 전혀 없는, 권위 있고 단일한 완결성을 지닌 텍스트와는 다르다. <문송안함>의 서사세계에서는 저자와 독자 그리고 캐릭터가 각자 균열된 세계를 이어가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펼치며 자신의 일에 몰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일으키는 변화가 차가운 웹소설 바닥에 불을 지펴서 저밀도의 웹소설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45) 마셜 매클루언은 미디어를 ‘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나누었다. ‘핫 미디어’란 단일한 감각을 고밀도로 확장시키는 미디어로 여기서 고밀도란 데이터로 가득찬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라디오, 영화, 사진 등은 ‘핫 미디어’이고 전화, 텔레비전, 만화 등은 ‘쿨 미디어’이다. 만화는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가 극히 적고, 전화는 귀에 주어지는 정보량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설도 주어지는 정보량이 적어 듣는 사람이 보충해야 하므로 저밀도의 차가운 미디어에 속한다. McLuhan, M.,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the Estate of Herbert Marshall McLuhan and Gingko Press, 1946, 1996. (김성기 · 이한우 옮김,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02, pp.56~57.)

IV. 맺음말

2022년 7월 1일 삽화가 포함된 마지막화를 올린 후 저자인 정수월은 다음날 후기를 적는다.

이 첨언은 결코 텍스트에 대한 확정된 해석이 아니며, 따라야 할 독해 방식도 아님을 알린 뒤 사족을 보탬니다.

롤랑 바르트가 「저자의 죽음」에서 쓴 문장을 인용하자면 “텍스트는 신과 같은 저자의 전언인, 단 하나의 신학적 의미만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채신머리없이 뺨 받 몇 가닥을 스물스물 덧붙이는 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연적으로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독자는 글쓴이 자신입니다. PC통신 시절에 입문하여 대여점 시대를 거쳐 문피아로 넘어오는 내내 장르소설을 즐겨 읽어온 독자로서, 첫 이야기라면 우선 저 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내용을 보고 싶었습니다.

(중략)

물론 저런 의도가 저면에 있었다 해서 반드시 쓴 사람의 의도대로 글이 독해되어야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애초에 이 이야기는 주의 주장을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텍스트, 명확한 학술적 근거와 주석이 필요한 글이 아니라 상상해낸 이야기의 모음이니 말입니다……46)

저자 정수월은 저자가 신과 같은 권위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자신을 “첫 번째 독자”라고 칭한다. 즉, 자기 글을 처음으로 읽는 자는 글쓴이 자신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저자이자 첫 번째 독자인 자신이 〈문송안함〉이란 소설을 자기 식대로 쓰고 읽었다고 해서 무수한 여타 다른 독자들이 자신처럼 읽으

46) 정수월, 앞의 책, 작가공지, 「후기」(2022.7.2.).

라는 법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문송안함>은 즐거움을 주기 위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즐거움은 예술작품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사실 흥미와 즐거움이 없다면 저자의 손을 떠난 작품이 실제적 객체인 독자에게서 재중심화된 텍스트 실제세계로 나타나기가 어렵다. 텍스트 내에서 살아있는 존재자로 살아가는 캐릭터들 또한 독자의 뇌리까지 닿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흥미로움에 힘입어 웹소설이 충분한 자율성을 지닌 예술작품이 될 수 있지만 이들 작품이 상대적인 질의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지나친 클리셰와 기존 문법의 답습에서 오는 동어반복적인 동질성은 한낱 성질들의 다발에 불과하고 자신의 성찰에서 분리된 객체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문송안함>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한국 웹소설의 책빙의 서사에서 드러나는 저자의 위치와 주체의 상관성, 그리고 이를 읽어내는 독자와 텍스트 안에서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의 위상 관계를 따져보는 자리였다. 분석작을 통해 한국 웹소설이 클리셰와 코드에만 의존하는 양산형 텍스트라는 선입견을 일정 부분 불식시키고 텍스트 재중심화를 통해 미적 특질을 자극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책빙의 서사는 빙의자에 의해 끊임없이 내용에 수정이 가해지는 나선형 루프와도 같다. 언뜻 보면 선형적 반복 같아 보이지만 단순한 되풀이를 넘어서는 복잡성을 띤 재귀함수이다.

<문송안함>은 “신으로부터 승인받은 단 한 종류의 정전만이 남겨진 세상이 아니”다. 저자 홀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단일한 텍스트가 아니므로 편집자인 클레이오가 필요했다. 아홉 번의 교정본과 10교라고 부를 수도 있을 사실상의 초고가 팔립프세스트에 기록되는 동안 「알비온 왕국의 왕자」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이야기의 균열을

추적하고 메꾸면서 자신들의 존재론적 위상을 드러냈다. 흥미로운 서사적 효과가 일어나는 공간은 독자가 투입할 수 없는 절대적인 허구 세계, 즉 텍스트 안의 등장인물들이 만들어가는 텍스트 실제세계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 ‘살해되었다고’ 알려진 저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저자와 캐릭터, 그리고 편집자가 재중심화되면서 한자리에서 융합되는 것은 감상자의 머릿속이다. 텍스트가 가진 감각적 성질과 실제적 사물 간의 균열을 메우거나 재배치함으로써 허구적 세계를 만드는 것은 실제적 객체인 나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와 독자, 그리고 캐릭터는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각자의 존재론적 지위 또한 동일하다. 그 어느 것도 홀로 작품을 이끌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저자와 독자, 그리고 캐릭터는 융합하지 않은 단독자이면서 동시에 융합하여 현시하는 평평한 존재들이다.

【참고문헌】

■ 기본자료

정수일, 『문과라도 안 죄송한 이세계로 감』, 문피아, 2019~2022.

■ 논문

- 구지준, 「책빙의물과 게임방송물 웹소설의 자기반영성 연구 - <전지적 독자 시점>과 <납골당의 어린 왕자>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66, 상허학회, 2022, pp.375-410.
- 김경애, 「한국 웹소설 독자의 특성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2(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21, pp.551-558.
- 김명석, 「웹소설 창작론 연구」, 『우리문학연구』 77, 우리문학회, 2023, pp.105-135.
- 김아림 · 김바로, 「부끄러움/창피함/축스러움/수치스러움/수줍음 간의 관계 고찰: 공기 명사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문맥 분석」, 『언어』 43(3), 한국언어학회, 2018, pp.409-441.
- 김준현, 「웹소설의 댓글과 독자 주체성의 문제」, 『국제어문』 91, 국제어문학회, 2021, pp.357-379.
- , 「문학 매체로서의 ‘웹’의 대두와 소설가/작가」, 『현대소설연구』 93,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 pp.5-31.
- 김창래, 「저자란 무엇인가?」, 『철학』 112, 한국철학회, 2012, pp.71-114.
- 권경미,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의 신계급주의와 서사 특징 - 책빙의물과 회귀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84,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pp.109-140.
- 류수연, 「웹소설, 댓글, 그리고 독서 - 스토리ске이핑과 변화된 ‘읽기’의 감각」, 『비교한국학』 30(3),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pp.69-92.
- 박인성, 「썬트-피드백 시대의 웹소설: 문장형 제목과 태그형 장표를 통한 사전 독서」, 『동서인문학』 66,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4, pp.7-41.
- 손진원, 「‘메리 수’ 팬픽션과 책빙의물의 관련성 연구: 2000년대 판타지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94, 동악어문학회, 2024, pp.9-40.
-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책빙의물’의 특성 연구-‘로맨스판타지 장표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6(3), 대중서사학회, 2020, pp.87-120.
- 유인혁, 「한국 웹소설 판타지의 형식적 갱신과 사회적 성찰」, 『대중서사연구』 26(1), 대중서

사학회, 2020, pp.77-102.

홍우진 · 신호립, 「웹소설 〈소설 속 엑스트라〉의 빙의 화소를 통해 본 정체성의 문제와 가능 세계의 양상」, 『국제어문』 98, 국제어문학회, 2023, pp.39-64.

■ 단행본

박지희, 『한국 웹소설의 서사세계』, 보고서, 2024, p.42, pp.111-112, p.179,

Barthes, R., S/Z. Éditions de Seuil, 1970.(김응권 옮김, 『S/Z』, 연암서가, 2015, p.392.)

—————, Plaisir Du Texte. Éditions de Seuil, 1973.(김희영 옮김, 「저자의 죽음」,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p.28.)

Harman, G., Art and Objects. Polity Press, 2020.(김효진 옮김, 『예술과 객체』, 갈무리, 2022, p.74, p.163, p.174.)

Bogost, I., Alien Phenomenology or What it' s like to Be a Thing. 2012,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김효진 옮김, 『에일리언 현상학 혹은 사물의 경험은 어떠한 것인가』, 갈무리, 2022, pp.56-57.)

Levinas, E., Le Temps et L' autre. Fata Morgana, 1979.(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p.123.)

McLuhan,M.,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tions of Man, the Estate of Herbert Marshall McLuhan and Gingko Press, 1946, 1996.(김성기 · 이한우 옮김,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02, pp.56-57.)

Hui, Y.,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in China: An Essay in Cosmotronics. Urbanomic Media, 2016.(조형준 · 이철규 옮김, 『중국에서의 기술에 관한 물음: 알고리즘 시대 인문학의 새로운 시작: 코스모테크닉스 시론』, 새물결, 2019, pp.279-280.)

■ 기타자료

파이낸스투데이, 「스토린랩-HIT 스튜디오, MOU 체결」,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655>(검색일:2025.8.16.)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문피아, 2025 지상최대 웹소설 공모전 연다」, <https://www.fnnews.com/news/202504091013273987>(검색일: 2025.8.19.)

Abstract

A Study on Authorship and Subjects Revealed in the Narrative of
 Korean Web Novels on Book Traveler's Genre
 - Focusing on "Going to the Second World, where you're not sorry at least for liberal arts"

PARK, JI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 and the reader within the narrative world of web novels in the Book Traveler's Genre, while also addressing the identity challenges faced by characters within these works. To achieve this, we first assess the validity of traditional concepts of authorship,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moments when the author, character, and interpreter are re-centered and revealed as real entities.

The web novel "Going to the Second World, Where You're Not Sorry at Least for Liberal Arts" (shortened to Korean, 'Moon Song-ahn-ham') was selected for this study for two main reasons. First, it raises important questions about the topology between fictional characters and real humans throughout the analysis. Second, the actual author has expressed opinions on 'authorship' directly through a review of the work, while readers have actively engaged in discussions about it through comments. This interaction serves as an effective indicator for examining the dynamics between the author, reader, and character.

Through this study, we aim to demonstrate that some works of art are compelling and can be considered art precisely because of this intrigue. The worldview presented in the analyzed work allows readers to recognize aesthetic qualities by portraying sensory attributes as tangible objects. In this process, we establish that art cannot exist without the reader's involvement, and that the fictional world re-centered in the reader's mind holds the same ontological status as that of the author or reader.

Key Words : Web novels, Book Traveler's Genre, Authorship, Subjects, Objects, art, Going to the Second World, where you're not sorry at least for liberal arts, munsong-an-ham

박지희

소속 :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초빙교수

전자우편 : literat@kakao.com

이 논문은 2025년 08월 20일 투고되어
2025년 09월 21일 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5년 09월 22일 게재 확정됨.